

#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Factors Influencing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in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심 희 옥\*

Sim, Hee Og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factors influencing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Subjects were 481 boys and girls enrolled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of public school. The contribution of grade, sex,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s well as school performance were studied. The instruments were the Adolescent Perceived Events Scale, the Self-Esteem Scale,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the 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and Antisocial Behavior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sex, stress, self-esteem, and the support of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reduced the level of depression. Grade, sex, stress, self-esteem, and teachers' support were related to the level of antisocial behavior.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effects of stres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 I. 서 론

아동은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 똑같은 생활 사건이지만 어떤 아동에게는 좋거나 바람직한 일로, 어떤 아동에게는 싫거나 나쁜 일로 여겨져 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 부적응 문제, 즉 내적, 외적인 문제행동(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일명 스트레스 대처 자원으로 불리는 자기 내부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자아 존중감이나 내적인 통제감 등)과 더불어 타인 특별히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정신적 지지와 도움 같은 환경적인 자원은 생활 속에서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로부터

\*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적응을 돕는 주 효과, 완충, 그리고 매개 요인으로 널리 보고되고 있다(강성희, 1991; 심희옥, 1995; Cohen 외, 1986; DuBois 외, 1992; Jessor 외, 1995; Sim, 1994; Windle, 1992b).

뚜렷한 생리적 변화와 사회적 기대 및 위치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적응문제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 이전기 즉 아동 후기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들간의 발달상의 차이 즉 그들의 경험세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와 청소년 이전기를 분리한 연구는 많지 않다. Larson과 Ham(1993)은 청소년 이전기의 5, 6학년생들과 청소년기의 7-9학년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부적인 생활경험이 전자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하며, 청소년기 피험자들이 청소년 이전기 피험자들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부적인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이전기와 청소년기를 분리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아동기 역시 스트레스의 대처나 적응기술이 빠르게 발달하여 생활사건이 개인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대처 기능을 증진시켜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예방 프로그램이 부여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이 지적되고 있다(Compas, 1987). 또한 아동의 외적인 부적응 중의 하나로 비행 행동 양식이 자주 그리고 아주 이른 나이부터 발달된다고 하므로 청소년기 못지 않게 아동기를 대상으로한 스트레스,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적은 청소년 이전기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적응 행동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을 위해 부적인 생활경험과 더불어 내적·외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이 연구에

서는 여러 내적인 문제행동 중에서 청소년의 자살기도,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우울성향과 외적인 문제행동으로는 반사회적 행동, 즉 사회적 규칙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저슬리는 행동(싸움, 거짓말하기, 도둑질, 무단결석, 방화 등)을 결과 변인으로 삼았다.

이 연구는 산업사회로 치닫는 발전과 함께 물질 존중 가치관의 팽배와 학업 성취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며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는 이 시점에서 아직 청소년이 안된 청소년 이전기 즉 아동 후기의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상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그들의 부적인 생활경험과 더불어, 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 그들의 학업 성취정도와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우울해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기 쉬운 아동을 알아내어 그들의 적응을 도와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들

#### 1) 스트레스(부정적인 생활 사건)

Lazarus와 Folkman(1984)의 정의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부담이 큰 것(taxing) 또는 대처 능력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보통 스트레스는 크고 작은 생활사건의 발생 횟수나 바람직성(desirability) 또는 그것의 영향(impact)에 의해 측정된다(Williams와 Uchiyama, 1989). 성인기와 마찬가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

은 단 한가지의 문제만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내면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는 이들에게 우울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신은영과 김경연, 1996; Compas 외, 1986a; Compas 외, 1986b; Johnson 외, 1980; Monroe, 1983; Siegel과 Brown, 1988; Swearingen 외, 1985), 또한 외면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약물 남용(Bruns 외, 1984; Novy 외, 1985; Vaux 외, 1983) 등 외적인 표출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할 수 있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생활사건에 반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경험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우울, 불안, 강박감 등)과 관련이 있음이 청소년의 연구(Compas 외, 1986a)에서 보고된다. 강성희(1991)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응에 관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생의 연구는 부모가 보고한 아동이 겪은 스트레스가 교사, 부모가 평가한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오명희(1994)의 초등학교 1학년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아동일수록 교사에게 더 반항적이며,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한 문제행동 중 불안, 자기파괴, 태만, 공격성의 행동범주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파괴성향이 강하고 더욱 공격적이었으며, 여아는 남아보다 더 불안한 행동을 보였으며, 더욱 나태했다고 한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4, 6학년생의 과잉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그리고 미성숙행동이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 2) 자아 존중감

성인이나 청소년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나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이들은 생활의 변화 속에서 적

응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부적응 반응이 적다고 한다. 대표적인 개인적 자원으로 연구되는 것이 자아 존중감이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 개념의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말한다(Santrock, 1994). 아동 후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그들의 부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분명히 그들간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먼저 자아 존중감과 비행 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Leung와 Drasgow(1986)의 14-21세에 이르는 3개(백인, 흑인, 스페인계)의 민족 그룹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백인계의 청소년이 더 적은 비행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며, Leung와 Lau(1989)는 7-9학년 청소년의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보다는 학업이 나쁜 것에 대한 자기 개념과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나쁠 경우 더 많은 비행 행동을 보였다. Moran과 Eckenrode(1992)의 12-18세의 학대의 희생이 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연구는 두 그룹 모두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성향이 컸다고 보고한다.

## 3) 사회적 지원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원이 심리, 신체적 건강,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청소년 이전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분명히 이들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사회적 지원이란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호의나 개인이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신적인 지지나 위로를 말한다. Windle(1992a)은 10, 11학년생의 스트레스 완충(stress buffering)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과 낮은 수준의 가족의 지지

더 많은 문제 행동(우울성향, 알코올 문제, 비행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Windle (1992b)은 청소년의 어려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의 지지는 더 적은 우울과 비행에 관련이 있으나, 친구의 지원은 더 높은 수준의 비행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Sandler(1980)는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존재하는가 부재 하는가의 측면에서 유치원생에서 3학년생까지의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보다 나이는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계신 것이 공격적이고 방해적인 행동을 줄여 주었다고 한다. Compas 외(1986b)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옮겨가는 정규적인 생활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이 불안, 우울 등에 취약하게 한다고 한다. 강성희(1991)는 4, 5, 6학년생이 지각한 또래, 가족, 교사의 지지는 교사, 부모가 보고한 문제행동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즉 사회적인 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행동이 적었다. Benson과 Deeter(1992)는 긍정적인 생활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수보다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감이 16-19세 고등학생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한다고 한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4, 6학년생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의 지지는 불안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을 적게 해주며, 가족의 지지는 위축행동, 공격행동을 적게해 주었다.

#### 4) 학업 성취

Erikson이 분류한 인생의 단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이라는 시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이전 단계에서 발달시킨 주도성을 가지고 지식과 지적인 기술들을 익히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쏟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들은 무력하고 비생산적인 느

낌인 열등감에 쌓일 수 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오늘날 같이 학업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에서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는 아동의 적응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행에 관한 사회통제 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아동이 사회적 그룹(가족을 포함한)과의 유대(bonds)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유대는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다(Gottfredson과 Hirshi, 1990; Sampson과 Laub, 1994).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체제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낮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언한다(Patterson 외, 1992). Sim과 Vuchinich (1996)의 연구는 학업 성취가 높은 아동과 청소년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한다고 한다.

## 2. 스트레스, 우울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학년·성별간의 차이

순수하게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성향,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에서의 학년별, 성별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적지만 청소년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차를 보고한다. Compas와 그의 동료들은(1985) 청소년 연구대상을 12-14세, 15-17세, 18-20세의 청소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생활사건의 경험을 묻는 연구에서 성별차이가 연령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즉 청소년 초기 남학생이 부적인 생활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보고하고, 여학생은 이와 반대로 부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청소년 중기 여학생도 부적인 생활 사건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청소년 중기의 남학생과 말기의 남녀학생의 경우 정적, 부적인 생활 경험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Greene(1988)은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학년과 성별간에 스트레스 사건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Fleming과 그의 동료들은(1989) 청소년 이전기 연령의 우울성향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을 지적하며, 청소년들과 청소년 이전기 아동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이전기 아동에게서는 우울의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울성향에서 성별간의 차이는 청소년 중기가 되어야 나온다는 연구(Hawton, 1986; Nolen-Hoeksema, 1994)와 더불어 만일 사회적으로 정한 성역할에 맞추어 남성스런 표현의 문항으로 우울정도를 돌으면 남자들의 우울점수도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Baron과 Campbell, 1993). 광금주와 문은영(1995)의 초등학교 4, 5학년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반사회적 행동에서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우울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학년, 성별, 아동에게 좋지 않은 생활경험, 개인적, 환경적 자원,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등이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학년별로 부정적인 생활경험, 우울성향, 반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3. 성별로 부정적인 생활경험, 우울성향, 반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으로 5학년씩 총 15학급의 577명이었다.

성실한 답지 481명분만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령은 9-13세이고, 평균연령은 10.87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53%, 대학교 졸업자가 31%이고, 직업은 판매, 숙련, 사무직이 87%이고,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66%, 대학교 졸업자가 15%이고, 직업은 판매, 숙련, 사무직이 78% 정도였다.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중류정도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학년			
4	75(30.9)	72(30.3)	147(30.6)
5	78(32.1)	77(32.4)	155(32.2)
6	90(37.0)	89(37.4)	179(37.2)
계	243(50.5)	238(49.5)	481(100)

#### 2. 측정도구

##### 1) 생활 사건 측정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Compas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청소년이 지각한 사건척도(Adolescent Perceived Event Scale, 1987)로 크고 작은 생활 사건이나 변화가 응답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 즉 사건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평가를 묻는다. 응답자는 먼저 생활사건 하나 하나가 현재 혹은 이번 한해 동안에 일어났는지를 표시하고, 일어났으면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평가한다. 부적인 생활사건, 즉 스트레스는 아동이 일어났다고 답한 사건에 “나쁘다”고 표시한 항목의 합계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72를 나타내었다.

## 2) 자아 존중감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이 아동의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71이었다.

## 3) 사회적 지원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척도(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Harter, 1986)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24개로 4가지의 하위 항목들로 이루어지고, 6개 문항씩 부모, 반친구,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측정한다. 예비연구에서 “반친구”나 “친구”라는 개념에 큰 차이가 없어, 반친구 문항을 뺀 총 18개의 문항이 사용되었고, 응답형식도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되었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아버지나 어머니)이 계신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자기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에 표시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부모의 경우 .80, 선생님의 경우 .83, 친구의 경우 .81이었다.

## 4) 학업성취

아동의 1학기 전과목과 2학기 주요과목,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의 평균이 학업성취로 사용되었다.

## 5) 우울성향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가 사용되었다. Noh, Avison 과 Kasper(1991)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척도: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최근 2주 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혀/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거의 항상 이었다”로 표시한다. 한 문항의 예는 “울음을 터트렸다”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87을 나타내었다.

## 6)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금주와 문은영(1993)이 만든 초등학교용을 4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번 한해 동안에 얼마나 자주 문항의 행동을 했는지 “없다”에서 “많다”까지로 1-5점 척도로 표시한다. 한 문항의 예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 3. 자료 분석

PC-SAS를 이용하여 각각의 변인의 개별적·상대적 기여를 테스트하기 위해,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을 각각 결과 변인으로 삼아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고, 주요 변인들간의 학년,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 *t*-검증을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학년	-									
2. 성별*	-.01	-								
3. 스트레스 (부적생활사건)	-.04	.17***	-							
4. 자아존중감	-.14**	.02	-.18****	-						
5. 부모지원	-.07	-.04	-.10*	.51****	-					
6. 선생님지원	-.17***	-.02	-.02	.37****	.43****	-				
7. 친구지원	.05	-.10*	-.08	.38****	.45****	.31****	-			
8. 학업성취	-.08	.03	-.10*	.22****	.25****	.18****	.15***	-		
9. 우울성향	.11*	-.07	.23****	-.49****	-.39****	-.33****	-.32****	-.21****	-	
10. 반사회적 행동	.16***	.30****	.28****	-.26****	-.17***	-.19****	-.09*	-.14**	.31****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성별은 여자=0, 남자=1.

## 2. 연구문제 1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표 3>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변인	우울성향			반사회적 행동		
	$\beta$	$p$	AdjR <sup>2</sup>	$\beta$	$p$	AdjR <sup>2</sup>
학년	.05	n.s.		.12	.003	
성별*	-.11	.004		.28	.0001	
스트레스	.17	.0001		.20	.0001	
자아존중감	-.31	.0001		-.18	.001	
부모지원	-.10	.04		-.01	n.s.	
선생님지원	-.12	.01		-.09	.05	
친구지원	-.11	.02		.06	n.s.	
학업성취	-.06	n.s.		-.07	.09	
			.32			.22

\*성별은 여자=0, 남자=1.

연구문제 1의 아동의 학년, 성별, 아동에게 좋지 않은 생활경험, 개인적, 환경적 대처 자원, 학교에서의 학업성취 등이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개별적·상대적 기여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중다회귀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먼저 우울성향은 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해하며,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적고, 부모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우울성향은 낮았으며, 선생님 과 친구에게서 지각한 지원이 많을수록 우울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부모보다 친구와 선생님의 지지가 아동의 내적인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시사된다. 위

의 변인들로 우울성향 변량의 32%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단연코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인 생활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지각한 지지가 반사회적 행동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낮게 하는 경향( $p < .10$ )을 보이고 있다. 학업성취가 아동 후기 아동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반사회적 행동의 변량이 위의 변인들에 의해 22%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스트레스, 우울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학년·성별간의 차이

연구문제 2의 학년별로 부정적인 생활경험, 우울성향, 반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표 4), 스트레스 경험은 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Multiple-range test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우울성향은 4, 5학년이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5, 6학년이 같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며 학년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4, 5학년이 같은 수준이고, 6학년이 가장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의 성별로 부정적인 생활경험, 우울성향, 반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표 5), 스트레스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55) = -3.76$ ,  $p < .001$ . 우울성향에서는 남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13) = -6.89$ ,  $p < .0001$ .

〈표 4〉 스트레스, 우울성향,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학년별 변량분석 결과

변인	학년	평균	F	Duncan
스트레스	4	4.25	$F = .61$	A
	5	3.94	n.s.	A
	6	3.91		A
우울성향	4	46.15	$F = 2.90$	B
	5	48.01	$p < .05$	A B
	6	49.00		A
반사회적 행동	4	56.72	$F = 7.71$	B
	5	57.27	$p < .001$	B
	6	61.22		A

〈표 5〉 스트레스, 우울성향,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별  $t$ -검증 결과

변인	성별	M	SD	t
스트레스	남	4.57	3.23	-3.76*
	여	3.55	2.64	
우울성향	남	47.03	9.98	1.58
	여	48.58	11.27	
반사회적 행동	남	61.98	12.90	-6.89**
	여	55.04	8.58	

\* $p < .001$  \*\* $p < .0001$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 이전기 즉 아동 후기 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낳게 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년, 성별, 스트레스, 개인적, 환경적 대처 자원으로 자아 존중감, 부모, 선생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업성취를 설정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 후기 아동의 내적 부적응인 우울성향에 기여하는 변인은 성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즉 부모, 선생님, 친구로부터의 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년, 스트레스, 개인적·환경적 자원, 학업성취 정도를 통제 한 가운데 남학생의 우울성향이 여학생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 속에서 부적응, 삶은 경험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더 우울해 한다.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로써 아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생활의 변화나 나쁘게 느끼는 생활 사건 상황은 분명히 아동을 우울하게 하는 것 같다 (신은영과 김경연, 1996; Siegel과 Brown, 1988).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고, 부모, 선생님과 친구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우울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ndall 외(1990)가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대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울증의 가장 공통적인 증후이며 우울한 아동이 자신의 수행이나, 소유한 것, 개인적인 자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부모보다 친구와 선생님의 지원이 우울을 적게 느끼게 해주는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아동 후기에 아동이 정서적인 적응 측면에서 부모의 존재보다는 또래나 선생님의 존재가 더 중요한 타인으로 부각되는 듯하다(한미현과 유안진, 1996; Furman과 Buhrmester, 1992; Levitt 외, 1993).

외적인 부적응으로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학

년이 높을수록 특히, 6학년이 4, 5학년보다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질서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사회적 규칙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더 하는 것 같다. 또한 우울성향과 마찬가지로 부적응 생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처럼 아동의 좋지 않은 생활 경험은 아동을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이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nberg 외(1989)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ships)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이 타인에게 거슬리는 행동이나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 받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선생님의 높은 지지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높은 학업성취가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교에서의 적응정도 즉 아동이 선생님을 정신적 지지자로 지각하고, 학업 성취가 높은 아동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학교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들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 생활 경험에는 4, 5, 6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Greene(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4, 5, 6학년생의 전반적인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들 학년을 발달 경험상 하나로 취급하여 연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년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인지가 분명해지고 자기의 의사 표현이나 주장이 점점 뚜렷해지며 자신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동 후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 이유를 본 연구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흥미 있는 결과이며, 주로 여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청소년기와는 다른 점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아동 후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남녀차이가 없는 것은 우울성향의 성차가 청소년기가 되어야 나타난다는 Fleming의(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존의 질서나 체제에 더 반항적이며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로 조사대상의 일반화문제이다. 다른 사회, 경제환경의 아동에게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셋째로 아동 혼자만이 자기보고로 조사에 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응답의 신뢰성 문제이다. 특히 아동 스스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반사회적 행동의 보고에서 그렇다. 또한 질문지를 통해 우울성향을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찰법이나 전문가의 면접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 이전기 아동 나뭇대로의 발달상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한 그들의 부적응 문제를 다루므로 실제적으로 아동들이 어떻게 더 잘 그들의 생활에 적

응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년, 성별, 스트레스, 외적인 자원, 학업 성취 등을 통제한 가운데 자아 존중감이 내적, 외적인 부적응에서 상당히 유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지도를 실시하여야겠다. 또한 성인이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적응간에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생활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울해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더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크거나 작은 부정적인 생활경험을 많이 하는 아동을 미리 확인하여 스트레스 적용에 취약한 아동으로 여겨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또한 학교에서의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이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선생님과 학생간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선생님을 지지적인 존재로 지각하지 않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을 요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동이 학업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학업 성취를 높여주는 것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줄여 줄 수도 있음이 시사된다. 즉 학업 성취가 부족한 아동이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의 외적인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더 신뢰성을 갖기 위해 부모나 선생님, 친구로부터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묻는 것이고, 둘째, 발달단계별로 즉 아동 후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발달상 차이가 있는 부적인 생활경험을 하는지와 이에 따른 부적응을 인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중단연

구가 요구된다. 셋째, 반사회적 행동의 설명변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연구에서 상정되는 가족의 변인(부모의 양육방식)이나, 비행 또래(deviant peers) 변인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곽금주, 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Ⅱ):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신은영, 김경연(1996). 아동·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4(6), 195-205.
- 심희옥(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8.
- 오명희(1994).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적 사건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Baron, P., & Campbell, T. L. (1993).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adolescents: An extension of earlier findings. *Adolescence*, 28(112), 903-911.
- Benson, L. T., & Deeter, T. E. (1992).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School Counselor*, 39, 189-194.
- Bruns, C., & Geist, C. S. (1984). Stressful life events and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ress*, 10, 135-139.
- Cohen, Sheldon, Sherrod, D. R., & Clark, M. S. (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63-973.
-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mpas, B. E., Davis, G. E., & Forsythe, C. J. (1985). Characteristics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677-691.
- Compas, B. E., Davis, G. E., Forsythe, C. J., & Wagner, B. M. (1987). Assessment of major and daily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The Adolescent Perceived Event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534-541.
- Compas, B. E., Slavin, L. A., Wagner, B. M., & Vannatta, K. (1986a).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3), 205-221.

- Compas, B. E., Wagner, B. M., Slavin, L. A., & Vannatta, K. (1986b). A prospective study of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dur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3), 241-257.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Fleming, J. E., Offord, D. R., & Boyle, M. H. (1989). Prevalence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the commun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647-65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ottfredson, M., & Hirs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e, A. L. (1988).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str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4), 391-403.
- Harter, S. (1986). *Manual: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wton, K. (1986).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Newbury Park, CA:Sage.
- Jessor, R., Den Bos, J. V.,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Johnson, J. H., & McCutcheon, S. M. (1980). Assessing life stress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Preliminary findings with the Life Events Checklist. In I. G. Sarason, C. D. Spielberger (Eds.), *Stress and anxiety* (Vol.7, pp. 111-125). Washington, DC:Hemisphere.
- Kendall, P. C., Stark, K. D., & Adam, T. (1990). Cognitive deficit or cognitive distortion in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255-270.
- Larson, R. & Ham, M. (1993). Stress and "Storm and Stress" in early adolescence: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events with dysphoric a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130-14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Springer.
- Leung, K., & Drasgow, F. (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s: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17(2), 151-167.
- Leung, K., & Lau, S. (1989).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8*(4), 345-359.
- Levitt, M. J., Guacci-France, N., Levitt, J. L. (1993).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tructure and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5), 811-818.
- Monroe, S. M. (1983).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urther issues and finding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6*, 189-205.
- Moran, P., & Eckenrode, J. (1992). Prote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ong adolescent victi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6*, 743-754.
- Noh, S., Avison, W., & Kasper, V. (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Nolen-Hoeksema, S. (1994). An interactive model for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19-534.
- Novy, D. M., & Donohue, S.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life stress events and delinquent conduct including conduct indicating a need for supervision. *Adolescence, 20*(78), 313-321.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Sampson, R. J.,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1), 41-52.
- Santrock, J. W. *Adolescence* (5th). Madison: Brown & Benchmark. 1994.
- Siegel, J. M., Brown, J. D. (1988). A prospective study of stressful circumstance,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715-721.
- Sim, H. (1994). Coping resource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Corvallis, OR.
- Sim, H. & Vuchinich, S. (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

- nal of Family Issues*, 17(3), 408-427.
- Swearingen, E. M., & Cohen, L. H. (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45-1054.
- Vaux, A., & Ruggiero, M. (1983). Stressful life change and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2), 169-183.
- Williams, C. L., & Uchiyama, C. (1989). Assessment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The use of self-report inventories. *Adolescence*, 24(93), 95-118.
- Windle, M. (1992a).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 Windle, M. (1992b).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Interrel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1), 1-21.